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치러진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것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고쳐 쓰고’ ‘빌려 쓰는’ 철저한 예산 절약으로 8171억 원에 달했던 총 사업비를 6172억 원으로 줄였다. 2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데다 300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다. 보기 드문 흑자 대회였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선수촌은 도심 재생 방식으로 풀려 났다.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선수촌으로 활용된 뒤 시민들에게 분양했다. 경기시설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긴밀한 협상 끝에 신축을 최소화했다. 65개 시설은 개보수에 사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인근 지자체의 도움을 받았다. 수영장, 양궁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등 4개 경기장만 새로 짓거나 증축했다. 재활용률은 95.7%에 달했다. 개폐회식에는 직전 대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13억 원만 투입하고도 국내외의 극찬을 받았다. 시상대와 메달 받침대까지 인건 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물려받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국제 대회 사상 가장 알뜰한, ‘자린고비 대회’로 이름을 남겼다. 경기 성격도 좋았다. 한국은 리듬체조 3관왕 손연재와 2관왕을 거머쥔 광주 출신 ‘신궁’ 기보배 등의 선전에 힘입어 U대회 사상 최초로 종합 우승

다시 ‘광주의 시간’이 왔다

을 차지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지자체가 유지한 국제 행사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가 이어지면서 애항심과 공동체 의식이 돋보인 대회였다. 대회의 MVP는 단연 ‘광주 시민’이었다. 끌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은 “광주가 전설을 썼다”라고 극찬했다.

U대회의 ‘전설’ 다시 한번

어느새 4년이 훌쩍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의 감동을 오늘 되새기는 것은, 광주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이 대회는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5대 메가(Mega) 스포츠 행사로 꼽힌다. 지금까지 이들 행사를 모두 치른 나라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뿐이다. 따라서 광주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의 스포츠 강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세계수영대회는 단일 종목이긴 하지만 주목도가 아주 높다. 201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의 경우 전 세계에서 39억 명이 티비 중계를 시청했다고 한다. 규모도 크다. 국가 대표들이 참가하는 광주 선수권 대회(7월 12일~28일)에는 194개국에서 선수, 임원, 심판진 등 7507명이 등록을 했다. 참가국이나 선수 모두 역대 최대다. 동호인들을 위한 마스터즈 대회(8월 5일~18일)에도 84개국에서 54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광주주시와 조직위는 이번 대회도 ‘저비용 고효율’로 치르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국제 대회를 치른 세계 주요 도시들이 막대한 시설 유지 비용으로 인해 재정

난을 겪는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에서다. 소요 예산은 운영비 1304억 원, 시설비 732억 원 등 2036억 원으로 최소화했다. 6개 경기장 가운데 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과 염주종합체육관은 개보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시 시설로 구축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임시 시설은 대회 후 철거되기 때문에 사후 운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선수촌 역시 노후한 송정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마련했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 또한 뜨겁다. 8600여 명의 신청자 가운데 선발된 3000여 명의 자원봉사단은 통역, 의전, 안내 등 31개 분야에서 대회 진행을 돕게 된다. 경기장 응원과 관광 안내 등을 지원하는 시민 서포터즈는 1만여 명으로 꾸려졌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27m 높이에서 ‘찰나의 승부’를 보여 줄 하이 다이빙과,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오픈 워터 수영의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설렘과 기대 속에 세계 각국 선수단과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지구촌 수영 축제는 이미 시작됐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이다. 여기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선도해 온 광주에서 인류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실현할 이벤트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다. 비록 엔트리 마감일까지 등록이 이뤄지지지는 않았지만,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으로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훈풍이 북한의 참가가 이어지기를 광주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번 대회는 또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인에게 각인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비엔날레 등 ‘문화도시’ 광주의 콘텐츠와 남도의 맛과 멋을 알리는 데도 더없이 좋은 장이다.

따라서 손님맞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겠다. 무더운 여름철에 치러지는 만큼 선수와 관람객들이 행여 폭염이나 감염병·식중독·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광주는 지난 U대회 당시 중동발 메르스(MERS) 사태 속에서도 한 명의 감염 환자 발생 없이 완벽한 방역 체계를 유지한 저력이 있다.

한편으로 U대회의 경우 크나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회의 유산을 이어가는 레거시(Legacy) 사업은 여태껏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긍지이자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념사업 역시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광주 정신’ 세계로

세계수영대회는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이자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이다. 광주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회로 성공시키려면 대회 기간 범정부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하다. 개최지 결정 이후 6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준비는 끝났다.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은 한 달여의 대회 기간에 판가름 날 것이다. 광주시와 조직위 그리고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적인 ‘평화의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그리하여 나눔과 연대, 대동(大同)의 ‘광주 정신’을 다시 한 번 세계에 보여 주자.

은펜칼럼



고성혁 시인

더위에 지치면 땀을 흘린다 형님을 생각한다. 물에 풀린 잉크처럼 형님의 외로움이 가슴을 적신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넘는 어느 여름 방학, 나는 고향을 찾았지만 친구가 없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홀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고 아버지가 다른 형도 말쑥이 떨어져 낚시를 드리우는 게 보였다. 그때 그 형과 나는 길에서 조우해도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동네 애들은 우리의 이상한 관계를 이미 눈치 채고 있었다. 우리가 눈빛이라도 건넬수록 으레 고약한 소문을 만들어 난처하게 하곤 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우리 또한

형님

서로의 존재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밀물이라 물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른 발에 힘을 주며 낚시대를 잡아챘다. 그때였다. 물이 휘젓 앞으로 쭈여 공중을 날았다. 입질의 느낌에 나도 몰래 앞으로 뻗은 발이 허공을 내디딘 것이다. 순식간에 바다 속으로 내던져진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잊은 채 바다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끝내 바다 밑 깔깔 걸은 따개비가 맨발을 쭈서 발바닥이 칼로 벤 듯 섬뜩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끌었다. 몸부림을 치는 내 손을 따들리며 익숙하게 갯바위로 끌어낸 사람은 남보다도 못하게 살아왔던 그 형이었다. 창줄 간에 달려온 형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이빙을 한 것이었다. 형은 그날 피가 솟구치는 내 발바닥에 풀잎을 짓기게 붙인 다음 건지 못하는 나를 업고 내가 방향 동안 와 있던 아버지가 집 앞 보랏대 더미까지 데려다 줬다. 어

쩌면 내 생명이 다했으 그때, 형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형님은 시골에서 중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지금껏 번두리를 전전하며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다. 아, 형님 나이 곧 칠십이다. 오십오 년이 넘도록 서울 살면서 자기 명의로 밤 한 칸도 마련해보지 못한 형님께 송구하고 또 송구하다. 그러나 그런 삶이 어디 형님뿐이라. 지난 명절에 택배를 보내다 알게 되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형제들의 분투어린 삶의 공통점을. 가방 꼬다리를 두드리거나 압축 프레스 공장의 야근으로 구부러진 허리가 익숙했던 누나는 죽을힘을 다해 연립 202호를 마련했고, 평생 동안 약속한 좌판을 펴고 노점을 하던 처형은 지난해에야 검은 색 등기부 등본을 받아 들고 전화를 해왔다. 처형의 연립 101호는 그녀의 등골과 바꾼 것이다. 이들의 평균 나이를 셈해보니 75세.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노고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형님과 처형의 반지하 방에서 듣는, 머리 위를 치나는 풍풍, 바람

소리 혹은 인력 시장 새벽 일거리를 찾거나 리어카에 박스를 싣고 때구르르 지나가는 목장갑 하나 없는 노인의 발돋움을 생각한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도 매번 알 수 없다. 우체국 책상에서 나는 그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생애를 반추하며 2만 9500원 짜리 완도산 중합 수산물 세트를 보냈다. 절망이 아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무로서. 땀과 눈물로 과거를 부어 밥술을 앉혔지만 쉬섯, 넘치지 않는 밥풀에 주저앉았을 그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희망의 생물을 길어 올린 빛나는 삶의 내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이 아말로 내 인생을 점점하는 펜치와 장도 되었고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킨 보철물(補綴物)이었다. 이른 어둑새벽 101호 혹은 202호를 스칠 바람소리를 생각하면서 내 상처와 허물을 생각한다. 우리 형님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들린다. 가슴이 아리도록 시리다.

기고

민심을 택한 나주시의회를 응원한다

대강 조사·평가위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세종·공주·죽산보는 해체, 백제·승촌보는 상시 개방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지만,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쪽은 죽산보 해체를 촉구한 영산강 제자연화 시민행동을 포함한 환경 단체들이다. 이들이 4대강 보 해체를 찬성하는 논리는 수질 때문이다. 물이 고여 있으니 녹조가 생기고 수질이 안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물이 흐르는 것은 수질과 관련이 없다. 더러운 물은 환경공학 기술을 통해 수질 복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깨끗한 물은 수질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 고인 물은 더러운 물이라는 1차원적 사고 방식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실질상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환경부 출처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유기 물질에 의한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2017년에는 2012년보다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12년과 2014년의 수질 부문 환경 향상 제과다(지역의 환경 문제가 1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역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수질 부문에 있어서 완벽한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계 자료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4대강 사업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정치적 쟁점을 마저 살펴보면, 과연 여당은 여전히 4대강 보 해체를 찬성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지난날

이해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맹래 환경부장관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보 해체를 시급히 두고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민심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 보 해체와 수문 상시 개방, 현 상태 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곧 국가를 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풀뿌리 정치를 통해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주신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나주시의회처럼, 총 6억㎡ 가 넘는 저수량을 가지는 4대강 16개 보에 대한 결정이 정쟁이 아닌 민심에 따라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결정되길 바란다. 아울러 당론을 거스르고 민심을 택한 나주시의회 이재남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용기를 응원한다.

社說

전통시장도 손님맞이 환경 개선 서둘러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이를 앞두고 다가왔지만 외국인 선수단이나 대회 관계자들이 즐겨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전통시장은 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이나 오리 등을 도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가 하면 악취가 심한 곳이 적지 않았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그제 오전 찾아간 광주 양동시장 닭전길. 줄지어 늘려 있는 높이 50cm 가량의 철창에 닭·오리·청둥오리 등이 갇혀 있었는데, 철창 바닥에 깔린 나무판자는 배설물로 뒤덮여 심한 악취를 풍겼다. 업소들은 ‘살아 있는 닭을 즉석에서 잡아 찐다’라는 팻말을 내건 채 손님을 끌고 있었다.

수산물 전문 시장인 동구 남광주시장의 통행로 곳곳에는 생선에서 떨어진 물이 고여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주말이면 ‘밤기차 야시장’이 개장하면서 수많은 외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배수 시설이 열악해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재래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선호물로 구입할 수 있는 전통 상품 판매소조차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세계수영대회가 개막하면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을 가능성이 많다. 시장에서 닭·오리를 도축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가림막을 설치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상인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악취와 배수 개선 등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대회 기간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날 장날을 맞은 광산구 송정 5일장과 북구 말바우시장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청결과는 거리가 먼 닭·오리 판매 업소들이 많은 탓인지 시장 입구부터 풍겨 오는 악취 때문에 상당수 방문객들이 손으로 코를 막았다.

결혼 이주 여성 절반가량이 맞고 산다는데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무차별 폭력에 노출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30대 남편이 부인을 주먹과 발, 또는 소주병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옆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남편에게 하도 맞아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영암 경찰청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폭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관련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나가면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이번만이 아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하면 2007년부터 10년간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결혼 이민 여성이 19명이나 됐다.

고 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봐도 이주 여성 920명 가운데 42.1%가 “가정폭력 경험에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 즉 절반가량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당한 뒤 도움을 요청했다는 물은 항목에선 ‘안 했다’는 응답이 31.7%나 됐다. 이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은 배우자 등의 영향력 때문이다. 아직도 국적 취득, 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 등을 할 때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적과 인종·피부색에 따라 인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우리도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어 만큼 이주 여성들을 보듬고 꺼안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해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과 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지구촌 최대 규모의 수영 축제인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가 들쭉거리고 있다. 세계 각국 선수단이 광주에 속속 도착하고,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각종 공연 등 문화행사가 펼쳐지면서 대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와 선수들이 참가한다. 전 세계 194개국, 2639명의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위해 금빛 물살을 가르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회 최대 흥행 요소로 꼽혔던 북한 선수단이 아직까지 참가 여부와 동보에 오지 않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평화의 물결 속으로’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 온 광주에서 전 세계 인류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대회 개막일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북한의 참가가 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번 대회는 말 그대로 한반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인류의 평화 가치를 드높이는 대회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정세 불안 등도 이번 대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회 주최 측인 세계수영연맹(FINA)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도 북한 참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엔트리 마감이나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개막일까지도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고, 선수촌과 개막식 좌석도 비워 놓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조성됨에 따라 대회 개막 전 북한의 참가 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어 온 게 사실이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이번 대회에서 북한의 참가로 증명됐으면 한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면서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의 물꼬가 터졌던 것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북한의 참가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장 cki@kwangju.co.kr

**평화의 물결**